

근거기반간호
임상간호연구결과

‘사회적 입원’ 노인들 삶의 변화 연구

병원에서 의식주 해결 편안하다 생각
의료진이 항상 곁에 있으니 안심돼
자녀에 부담주기 싫어 퇴원하기 꺼려
결국 외로움으로 ‘신 고려장’ 같다 느껴

병원생활= 단순하면서도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보냈다. 의료적 처치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가 대부분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서의 삶보다 일반인과 비슷한 일상을 보냈다.

△심신이 편안해짐= 식사 해결은 물론 편안한 침이 제공돼 마치 집에서 생활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만족스러운 병원생활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다. 자녀나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퇴원에 대한 두려움= 퇴원 후 오갈 데가 없어 퇴원을 두려워했다. 자녀들이 부모의 퇴원을 맡아주지 않았다. 자녀들에게 부담부담을 주면서까지 퇴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요양원에 대해 의료적 처치가 없고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사회적 고립=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접촉이 적어지고 특별한 것 없는 일상 속에서 무료함을 느꼈다. 어느 순간 자식이나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신 고려장)마저 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고 있었다.

주혜진 기자 hjoo@

노인들의 ‘사회적 입원’을 이 슈로 제시하며, 이들 노인의 특성을 도출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중앙일보가 지난 7월 보도한 ‘사회적 입원’ 기획 기사에 실려 주목받았다.

연구팀은 강근생 전남대 간호대학 박사과정생과 김정선 전남대 간호대학 교수이며, 연구는 문 ‘노인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요양병원에서의 삶의 변화’는 한국노년학회지 2017년 2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사회적 입원을 의학적인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적거나 없고, 주로 간호 및 영양 요구가 많은 대상자가 사회적 이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사회적 입원의 정의에 합당한 환자 15명을 심층 면담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결과 노인의 사회적 입원

으로 인한 요양병원에서의 삶의 변화의 본질적 의미는 6개의 주제모음과 19개의 주제로 도출됐다. 6개 주제모음은 다음과 같다.

△걱정거리가 해소됨=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에 대한 걱정거리가 해소돼 마음이 편하고, 혼자 있다가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어쩌나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녀들에게 더 이상 걱정스런 존재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편안해했다.

△새로운 관계 형성=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말벗을 하며 지내다보니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됐다. 의료진이 항상 곁에서 필요한 의료적 욕구를 적절히 해결해줘 의지가 됐다. 병원이 든든한 안식처가 됐다. 동료환자들과 가족 같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환자인 듯 환자 같지 않은



경남간호사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경남도지사상 안태현 아기

경남간호사회(회장·이경옥)는 ‘제15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를 8월 23일 풀만 엠배서더장에서 개최했다. 경상남도가 공동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생후 4~6개월 된 모유수유아 90명이 참가했다.

경남도지사상에 안태현(남·5개월), 대한간호협회장상에 권우현(남·6개월), 경남간호사회장상에 최서연(여·4개월) 아기가 선정돼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아토피 9명에게 상장과 상금 25만원, 보람상·행복상 등 66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이븐플로상, 존슨앤존슨상, 필립스아

트 모유수유상 등을 11명이 받았다.

경남도지사상을 받은 안태현 아기의 엄마 김미성 씨는 “당연히 모유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태현이가 건강하게 자라줘 기쁘다”면서 “젖을 먹이는 동안 아이와 하나로 연결돼 있는 느낌이 들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경옥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유수유를 통해 국민건강의 기초를 다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순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이 축사를 했다.

모유수유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줬으며, 올해 처음으로 모유수유 홍보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제주도간호사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한간호협회장상 이로운 아기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회장·강기선)는 ‘제19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8월 24일 오리엔탈호텔에서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생후 5~7개월 된 모유수유아 50명이 참가했다.

대한간호협회장상에 이로운(남·6개월) 아기가 선발돼 금메달(7.5g)을 받았다. 제주지사상 강서현(여·5개월) 아기에 금팔찌(3.75g)가 수여됐다. 우수아상 신수아(여·5개월) 아기를 비롯한 6명에게 15만원 상품권이, 장려아상 장서준(남·5개월) 아기를 비롯한 6명에게 10만원 상품권이 주어졌다. 이븐플

로상, 필립스아벤트상, 존슨앤존슨상 등을 총 36명이 받았다.

대한간호협회장상을 받은 이로운 아기의 엄마 유예슬 씨는 “모유수유를 잘하고 싶어 사전에 공부도 했었는데, 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면서 “행복하게 젖을 먹는 아기를 보며 깊은 유대감과 애착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강기선 회장은 “사랑으로 인내하며 모유수유를 하신 어머니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 대독), 김용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등이 축사를 했다. 김영보 제주도의원, 유진희 제주도의원, 홍경희 제주도의원, 김광수 제주도 교육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혜진 기자 hjoo@



강원도간호사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최우수건강아상 장시훈 아기

강원도간호사회(회장·손혜숙)는 ‘제15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8월 24일 강릉 리카이 호텔에서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생후 4~6개월 된 모유수유아 52명이 참가했다.

최우수건강아상에 장시훈(남·6개월) 아기가 선발돼 상장과 장학금 50만원을 받았다. 대한간호협회장상 김민준(남·4개월) 아기가 상장과 금메달(7.5g)을 받았다. 우수건강아상 방시우(남·4개월) 아기를 비롯한 5명에게 상장과 장학금 30만원이 수여됐다. 장려아상 김재술(남·5개월) 아기를 비롯

한 5명에게 상장과 장학금 20만원이 전달됐다. 이븐플로상, 필립스아벤트상, 존슨앤존슨상, 모유사랑 웃음이상·튼튼이상·행복이상을 총 40명이 받았다.

최우수건강아상을 받은 장시훈 아기의 엄마 박민아 씨는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수유자세부터 모유수유 상담까지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모유수유를 하며 아기와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손혜숙 회장은 “이번 대회가 모유는 아기를 위한 가장 귀한 선물을 알리고, 엄마들이 육아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희 강릉시장(김철래 강릉부시장 대독)이 축사를 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광주시간호사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김리유 아기

광주시간호사회(회장·박인혜)는 ‘제8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8월 25일 상무리컨벤션에서 개최했다. 광주시가 공동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생후 4~6개월 된 모유수유아 90명이 참가했다.

대상에 김리유(여·6개월) 아기가 선발돼 장학금 50만원을 받았다. 대한간호협회장상 신재이(여·6개월) 아기에 금메달(7.5g)이 수여됐다.

심사위원장 김은유(여·6개월) 아기가 장학금 30만원 받았다. 으뜸상 김은후(여·4개월) 아기를 비롯해 3명이 장학금 30만원을 받았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상 정우

성(남·4개월), 남유우(남·4개월) 아기가 장학금 25만원을 받았다. 버금상 이지우(남·4개월) 아기를 비롯한 6명이 장학금 20만원을 받았다. 슬기상 김시우(남·5개월) 아기를 비롯한 12명이 장학금 10만원을 받았다. 이븐플로상·필립스아벤트상·존슨앤존슨상·포토제닉상·기쁨상 등을 66명이 받았다.

대상을 받은 김리유 아기의 엄마 송희정씨는 “첫째에 이어 둘째 라유도 잔병치레 없이 건강한 것은 모유수유를 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인혜 회장은 “모유수유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박남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대독)이 축사를 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사만의 특권, RNcard!!
확 바뀐 하나카드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 첫 결제 후 10,000원 상당의 연회비 지원!
- RNshop에서 첫 결제시 5,000포인트 지급!
- 협회 관련 결제 시 20,000원 캐시백!

보사이프 www.nurselife.or.kr ☎ 1566-3137

RNcard 사용백서

매년 대한간호협회 관련 결제가 10만원 이상이면 2만원이 캐시백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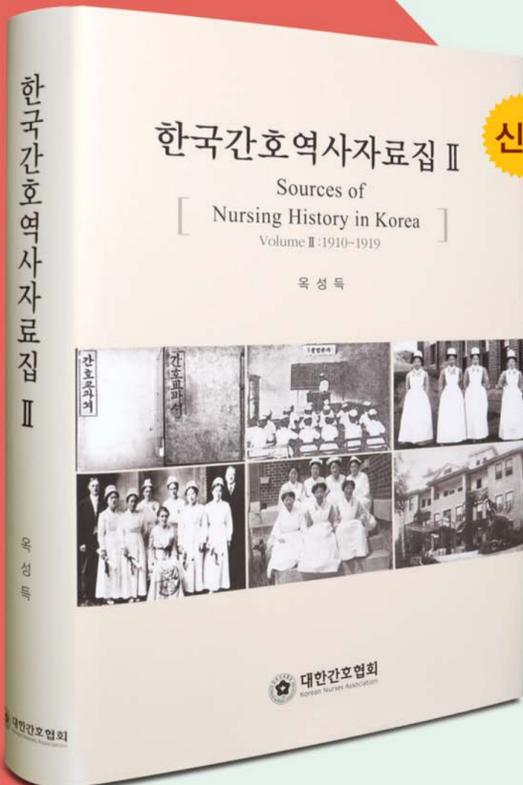
대한간호협회 | Nurselife 닷스라이프 | www.nurselife.or.kr | ☎ 1566-3137

강원도간호사회 회원역량강화 교육

강원도간호사회(회장·손혜숙)는 회원역량강화 교육 ‘미래의 리더를 위한 뮤지컬로 힐링하기’를 9월 27일 개최한다. 서울 블루스퀘어에서 뮤지컬 ‘레베카’를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강원도간호사회 2017년 등록회원 중 20~30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연 관람비 무료. 신청은 20명(기관별 2명 이하) 모집.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wd@koreanurse.or.kr) 또는 팩스(033-263-3816)로 접수. 문의 033/263-6419.

한국중환자간호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중환자간호학회(회장·이영희)는 2017년 추계 학술대회를 ‘임상실무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부정맥’ 주제로 9월 22일 삼성서울병원 양명원 강당(지하 1층)에서 개최한다.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edu.kna.or.kr)에서 9월 15일까지 등록, 논문초록 접수마감 9월 14일.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https://kscnc.jams.or.kr) 참조.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I: 1910~1919』 발간

일제 강점기 첫 10년인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의 간호 발자취를 집대성. 2011년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 1886~1911』에 이어 옥성득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교수가 집필을 맡아 6년 동안 자료 수집과 해석 일제강점기 간호와 간호교육의 발전, 그리고 간호사의 활약상에 대한 생생한 기록 수록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I: 1910~1919』 옥성득 저. 2017. 정가 40,000원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I: 1910~1919』 발간 기념 간호역사서 할인 판매

www.rnbook.or.kr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 1886~1911』 옥성득 저(2011) 정가 40,000원 판매가 36,000원(10% 할인)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I: 1910~1919』 옥성득 저(2017) 정가 40,000원 판매가 36,000원(10% 할인)

『간호사의 항일구국운동』 박용욱 감수(2012)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10% 할인)

구입문의 | 대한간호협회 출판사 02-2260-2553